

우려가 현실로... 미국 화학수출 임박

- ▶ 5월 북미 PE 재고와 수출 모두 급증 추세 지속(수출 전년 동월대비 +49.5%). 동반하여 미국 화학크래커의 원재료인 에탄도 같은 이유로 4년 래 최고치. 많이 하락한 화학 주가가 저렴하다고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

북미 PE 재고는 수출에 대한 준비로 3개월 연속 증대

US, Canada polyethylene stocks build despite stronger sales

Houston (Platts)

(전략) Exports made up the bulk of the sales increase, climbing to the highest level since December 2016. Domestic sales also rose, but mostly in line with levels seen throughout 2018, the data showed.

Total sales topped 3.92 billion lb, with production at 3.946 billion lb as producers added almost 24.3 million lb to stocks. That followed total builds of 421 million lb in March and almost 250 million lb in April.

(중략) while exports were 16% higher than April and 49.5% higher than the year-ago month (하략)

자료 : Platts, SK증권

미국 화학크래커 원재료인 에탄도 같은 이유로 4년 래 최고

Mont Belvieu ethane spikes to four-year high on exports, cracker startup

Houston (Platts)

The imminent startup of ExxonMobil's Baytown, Texas, steam cracker, and strong export demand pushed US Gulf Coast ethane prices to their highest assessed level in more than four years Wednesday.

June non-LST ethane rose 1 cent to 34.25 cents/gal, a high since February 25, 2014, when it was assessed at 36.75 cents/gal.

"Mariner East 1 is back, C4 favored, yet C2 still going up," an ethane buyer said, referring to the pipeline's restart and butane's favored cracker margins. (하략)

자료 : Platts, SK증권

- 미국의 PE(Polyethylene) 재고가 5월에도 증대입니다. 이미 3~4월에 급증을 했었는데, 여전히 추세가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 ACC(American Chemistry Council, 미국화학협회)의 보도에 의하면 판매(sales)량도 2016년 12월 이후 최고였음에도 재고가 계속 축적되는 분위기라고 하니,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무엇'은 당연히 '수출'입니다. 사실 신증설되는 물량이나 현지 메이저 업체들의 코멘트에서 2018년 중반부터는 대규모 수출이 있을 것이라는 감이 이미 있었는데, 현실화되는 분위기네요
- 5월 미국과 캐나다의 PE 수출은 4월 대비로도 +16% 늘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무려 +49.5% 급증이라고 합니다

- 미국의 수출이 만만치 않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 즉 미국의 '에탄' 가격에서 알 수 있습니다
- 금번 cycle에서 전 세계 공급에 충격을 줄 정도의 규모인 미국의 에탄크래커는 당연히 원재료(feed)가 에탄이기 때문에, 현재 신규 설비도 대규모로 가동 중이라면 에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 그런데 지난 6/20 platts 기사에 따르면, 6월 에탄 가격은 갤런 당 1센트가 상승하여 2014년 2월 이후 최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수치로 보면 C34.25/gal인데, 무려 4년 래 최대 치인 셈이죠
- 가격 상승이유도 상기와 동일합니다. ExxonMobil 신규설비 가동과 대규모 수출 준비(strong export demand) 때문이라죠
- 화학 상황이 버틸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은 미국 PE 수출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입니다. 많이 떨어진 화학 주가가 저렴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누차 말씀 드리지만, cyclical에 new normal은 없습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